

# 민주 “진상규명 강제조사권”…통합당 “역사적 평가에 최선”

여야 정치권 광주 총결집 '5월 정치'  
21대 국회 5·18관련 법안 드라이브  
통합당 일부 인사 5·18 망언 재사과

을 반영해야 하는 목소리도 키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강제조사권은 진상 규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제대로 된 진상 규명 없이 오랜 세월을 끌어왔다”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매듭짓기 위해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개호 의원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다시 한번 한기대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 도착해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어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박 시장은 유튜브 채널인 ‘박원순TV’를 통해 “현재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그날의 광주 시민이 없었다면 지금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1980년 5월 광주, 2020년 대한민국, 그날도 오늘도 시민이 영웅”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대표 권한대행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광주 방문은 주 원내대표의 취임 후 첫 현장 행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통합당의 광주 지역 총선 출마자들과 오찬 회동을 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긴다”며 “통합당은 민주화운동의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통합당 인사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더한 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 등 지도부와 호남 출신 당선인들도 오전에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미래한국당 조수진 대변인은 “40돌을 맞은 5·18은 국민통합을 위한 씨앗이 되어 있다”며 “5월의 광주는 이제 특정 지역, 특정 계층,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정당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된 유가족과 유가족에게 위로와 존경을 드린다”며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

린민주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남은 과제는 완벽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고 했고, 민생당은 “40주년을 맞아 광주 정신을 되새기며, 더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 및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제조사권·왜곡 처벌법 21대 국회 처리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때 가능

문 대통령 기념사 의미와 처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전 광주 옛 전남도청 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5·18에 대한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강조한 부분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왜곡 방지 ▲희생자 배·보상과 명예 회복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5월 정신의 보편화 등으로 집약된다.

우선 문 대통령이 이날 기념사를 통해 80년 5월 참혹한 진상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거듭 천명함에 따라 21대 국회에서의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77석의 민주당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슈퍼 여당으로 자리잡은 만큼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진상조사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조사위원들을 증원시키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일부 극우 인사들의 5·18 왜곡 및 폄훼 발언 등을 처벌하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원형 보존된 전일빌딩 245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21대 국회에서의 5·18 관련 법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그동안 5·18 진상조사와 왜곡 처벌 등에 미온적이었던 미래통합당도 최근 변화의 모습이 보임에 따라 관련 법안 마련에 정신히가 켜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5·18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및 명예 회복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

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라며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여전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코로나19 사태 등 정국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관찰해야 하는 장기적 과제로 남은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우리가 언젠가 개헌을 한다면 5·18민주화운동은 3·1운동, 4·19혁명과 함께 헌법전문에 수록돼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역사로 남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가는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월 정신은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며 “오월 정신은 더 널리 공감되어야 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거듭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5월 정신이 정쟁의 대상이나 역사적 부채감이 아닌, 지역과 세대를 넘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함께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밝힌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5·18 진상 규명을 위한 국민적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의 가장 큰 동력은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들”이라며 “국민이 함께 밝혀내고 함께 기억하는 진실은 우리 사회를 더욱 정의로움게 만드는 힘이 되고, 국민 화합과 통합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혀 80년 5월 진상 규명의 문을 여는 양심고백이 나오지 않느냐는 기대감도 낳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극우에 선 굵고...광주로 향한 보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기념식 참석

유승민·장제원·김용태 5·18묘지 참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18일 미래통합당 지도부 등이 광주를 찾아 과거와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였다. 특히 지난 4·15 총선에서 ‘광장 태극기 부대’ ‘보수 유튜브’ 등에 끌려가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던 통합당은 광주를 찾아 ‘변화하는 보수’를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당내에서 ‘합리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과거 통합당 관련자 등이 5·18 법제와 관련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여야의 원만한 합의 속에서 5·18 관련 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선출 직후 부친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주 원내대표로서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이기도 했다. 전날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의동 의원, 김용 당선인 등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장제원·김용태 의원도 개인 자격으로 광주를 찾았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한류”라며 “보수가 앞장서서 북한에 수출해야 할 노래”라고 칭송했다.

이번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대구에서 당선된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내년부터 꼭 광주 추념식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통합당의 ‘호남 구애’를 두고 지역에선 달라진 이념 지형과 당장 2년 뒤 대선을 의식한 것이라 시선 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고자 및 변의 광주행으로 호남 유권자들이 당장 통합당을 수용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극우 세력과의 단절 의지를 피력하는 차원이라고 봐달라”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예술이 흔들리지 않게 일상이 고립되지 않게

코로나19로 인해 몸도 마음도 움츠러든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과 일상의 활기는 계속되어야 하기에  
 광주문화재단이 여러분을 찾습니다.  
 5월부터 차근차근, 예술인과 시민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을 일으며 세우는  
 창작지원사업과 오프라인 공연을 본격 시작합니다.  
 #모두 힘내요 #함께 이겨요

예술인 힘 북돋우기	시민 일상 북돋우기
<b>예술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조치</b> 모든 보조사업 대기금 사레비 등 사업비 조기집행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등 지역단체 참여 확대 무관객·온라인공연 허용 및 아트트레일러 공연	<b>'월요콘서트'</b> (19:30) 5.19.(화) 토코콘서트 '베토벤 바이러스' ※ 5·18 지방공휴일 자정에 따라 일정 변경 5.25.(월) K아트 '베토벤 플래시백'
<b>창작지원 확대를 위한 신규사업 5월 중 진행</b> 예술인파견지원사업 '예술로' 50명 지원 공연예술단체 창작산실 2억3천만원 지원 민간소극장 창작 운영비·경상비 1억원 지원	<b>'LECTURE 콘서트'</b> (19:30) 5.21.(목) 장영민 '오페라의 유령' 5.28.(목) 홍신자 '자유를 찾아 인생순례의 길에서'
	<b>전통 문화관 '토요상설공연'</b> (15:00) 5.23.(토) 엠브릿지 '국악 in 가요' 5.30.(토) 소리야 '봄이여라 흥이로구나'

www.gjcf.or.kr    www.facebook.com/gjgjc    blog.naver.com/gjgjc    TALK 광주문화재단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7 | TEL.062-670-7400 | FAX.062-670-7489